



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
	보도	2017. 9. 7 10시	배포	2017. 9. 6(목)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박 주 영(02-2100-2630)	담 당 자	조 남 훈 사무관 (02-2100-2631)	
	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 정 훈(044-202-3340)		박 지 민 사무관 (044-202-3347)	
	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설 인 배(02-3145-5700)		구 본 경 팀장 (02-3145-5703)	
	한국은행 전자금융기획팀장 김 정 규(02-750-6639)		윤 재 호 과장 (02-750-6648)	

제 목 :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

①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

-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,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, 장애인 신탁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
② 은행 등 이용편의성 접근성 제고

-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ATM 구조 개선,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(1분→2분)

③ 금융이용 피해 방지

-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 정보공유,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

1 간담회 개요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'17.9.7일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,
-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논의·확정하였음

<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개요 >

■ 일시·장소 : 2017. 9. 7(목), 10:00~11:30, 이룸센터 회의실(여의도)

■ 참 석 자

- 금융위원회 위원장,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*
- *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,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, 한국농아인협회, 한국척수장애인협회
- 금융감독원, 금융연구원, 은행연합회,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/단체

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

-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,
 - 정책이 단편적·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
-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,
 -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,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, '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'을 마련하였음
- 이번 대책은 ①보험·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, ②금융회사의 맞춤형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, ③ 금융 이용 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
 -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,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
-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
 -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,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
 - 금융회사 스스로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것을 당부

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주요내용

1.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

- ①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,
 -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 「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 라인」 (인권위, 2013) 준수 유도
- * '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
- ②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등)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
 - ① (보험가입 의무 부여)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 방지
 - ② (보험료 지원)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- * 관련법안 개정안(장애인 보조기기법) 국회 복지위 상정('17.8.23)
- ③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(시각, 척수장애 등)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
 - ① (카드발급) 유권해석*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 마련
- * 창구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발급시 대리발급을 가능하게 하고,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
- ② (통장발급)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
- ④ 장애인 특별부양신탁*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,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(18.4~)

*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

2.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

- ① 장애인 특화 안내·상담서비스(수화상담, 점자상품안내장)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(문자상담, 보이스 ARS,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) 제공 확대
- * '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
- ②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TM 구조 개선(경사로 설치 및 하부 공간 확보) 및 점외 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배치 확대
 - ① (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 개정)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(단체)의 ATM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ATM 표준('11.10월, 한은) 개정
 - ② (장애인용 ATM 배치 확대) 평상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외 코너*의 장애인 사용가능 ATM 설치 확대
- * 점외코너의 휠체어 접근가능 ATM 설치비율은 34%(점내코너 83%)

3.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

- ① 신용정보(신용정보원) 범위에 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하여,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 방지
- *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해 방지 요구(국회 청원) 후속조치
- ② 농아인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장애인 특화 금융교육* 확대
- * 찾아가는 교육, 시각·청각장애인용 교재 개발, 온라인 교육 등

4 향후 계획

- ① 금년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 신속 추진
- ② '18상반기 중 금융위·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행 독려
- ③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(예: 격년)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·개선

[첨부] 1. 금융위원장 모두말씀, 2.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넌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